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고문서 기탁 잇따라

화순 흥성장씨 장기홍·창녕조씨 조병만 고문서 등 광주 민중기씨 최근 고서 등 5000점 기탁 연말까지 1만건 넘어설 듯...호남학 연구 도움

호남의 고서와 고문서는 호남학 연구와 정체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자료다. 현재 다산 정약용의 자료는 상당 부분 남양주 신태평박물관, 수원 한국서예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뿐 아니라 경북 대구에서도 예산을 세워 고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호남의 귀중한 고문서 자료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의 고서와 고문서는 남도의 정신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다행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설립돼 호남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최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고문헌 5000점이 기탁되는 등 고문서 기탁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측은 "연말까지 기탁 예약을 합치면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광주에 거주하는 민중기씨가 평생 수집한 고문서와 고서 등 5000여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자료는 전남, 전북의 자료가 고루 포함됐지만 특히 화순 지역에서 나온 고문헌이 가장 많다.

화순 흥성장씨 장기홍(張基洪, 1883-?)의 경우 조상 때부터 모아온 교지나 명문, 호적 등과 함께 남긴 일기가 5권이나 된다. 일기는 1924년부터 1956년까지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격동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양회갑의 경우는 송사 기우만과 일신제 정의립의 고제자로 깊은 학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문헌 속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강학안(講學案)은 어려운 시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문하는 전통을 세워나간 모습이 담겨 있다.

조병만(曹秉萬, 1829-1895)의 경우는 화순에서 운곡정사를 경영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그 터도 알 수 없지만, 이 집안에서 나온 고문서를 통해 운곡정사에 대해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화순의 한 후정이나 송석정 후손가에서 나온 고문서

고문헌, 안방준 후손집안에서 나온 고문서 등 다양하다.

권수용 연구원은 "근대기를 살았던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체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자료 제공으로 호남 지역 인물을 연구하고 나아가 호남학의 다양한 면모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흥성장씨 장기홍(張基洪, 1883-?)의 경우 조상 때부터 모아온 교지나 명문, 호적 등과 함께 남긴 일기가 5권이나 된다. 일기는 1924년부터 1956년까지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격동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양회갑의 경우는 송사 기우만과 일신제 정의립의 고제자로 깊은 학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문헌 속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강학안(講學案)은 어려운 시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문하는 전통을 세워나간 모습이 담겨 있다.

조병만(曹秉萬, 1829-1895)의 경우는 화순에서 운곡정사를 경영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그 터도 알 수 없지만, 이 집안에서 나온 고문서를 통해 운곡정사에 대해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화순의 한 후정이나 송석정 후손가에서 나온 고문서



민중기씨가 기탁한 고문헌을 분류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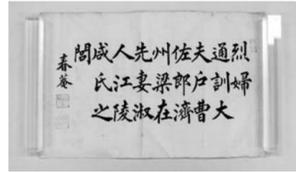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장기홍의 일기.

들도 있어 화순의 누정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5000여점을 기탁한 민중기 씨는 "호남의 고문헌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수십년 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적잖은 재산을 털어 자료를 모았지만 호남의 정신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고



양회갑 고문서-이강의 글씨.

생각하니 오히려 흥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주(幸州) 기(奇) 씨 금강문중(鑑江門中)이 문중의 문헌자료 2700여점을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한 바 있다. 기 씨 가문에서 기탁한 고문헌에는 1448년(세종30)에 발급받은 교지 등 다양한 고문서가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는 시인의 정신 본받고 싶어”

제3회 운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 수상 이윤식 시인 해외동포 우리말 위해 '민초해외문학상' 사비 들여 11년째 운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는 운동주 시인의 철학은 제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운동주 시인의 삶의 철학을 감히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본받고 싶어요.”

제3회 운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을 수상한 캐나다 교포 이윤식(77·사진) 시인은 “이 상을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못내 부끄럽다”며 사기된 얼굴로 소감을 밝혔다.

지인들과 중국 여행 중에 시상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는 그는 “어느 상보다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27일에 출국을 해야 하지만 이번 행사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4일자로 미뤘다고 한다.

경북 봉화 출신의 이 시인은 캐나다에

이민 간지 올해로 44년째다.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200달러를 들고 캐나다에 간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적잖은 세월이 흘렀다. 현재 그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로키산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금년 같이 일찍 찾아온 겨울에는 많은 눈이 쌓인 산과 들을 보며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며 잠시 눈을 감았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유학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캐나다로 떠났지요. 초창기에는 행상을 비롯해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공부했어요.”

그러다 그는 차츰 무역업,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역을 넓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는 봄, 가을 두 번씩은는데 제 인생의 만년을 좀 더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여행도 자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주 시인이 너무 좋아 용정의 명동 생가에 두 번이나 찾아갔다”는 그의 말에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이 됐다. 시인은 “솔직히 어디에서 주는 상이든 운동주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은 꼭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캐나다 이민은 단순히 박사학위 취득이나 돈을 버는 것 말고 또 다른 지향점이 있는 듯 했다. 지난 97년 ‘열린문

학’에 ‘방랑’ 외 3편으로 등단해 모두 7권의 시집을 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총연합회 회장과 70만 해외한민족 대표자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캐나다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을 12년간 맡기도 했다.

“민초해외문학상을 제정해 올해로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그 나라에 찾아가 직접 시상식을 해주거든요. 상금 5000달러는 제 사비로 지금을 하구요.”

뜻밖에도 그는 해외 동포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민초해외문학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초는 이 시인의 아호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철학에서 문학상을 제정했다.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말로 글을 쓰고 읽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년간의 악전고투의 고난과 희생이 이번 상으로 큰 보람을 안겨준다”며 “저승에 가서도 운동주 시인을 만나면 해외 동포들에게 민족 천년 대계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노라고 말을 할 생각”이라며 웃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벨·드뷔시·포레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저녁’

바이올리니스트 김대환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김대환(사진) 독주회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리스 라벨과 클로드 드뷔시,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김대환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를, 이어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시향, 프라하 심포니 등과 협연하는 등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뮤직소사이어티 단원 등으로 활동하는 김대환은 단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가단조 ‘유작’’, 드뷔시의 ‘소나타 사단조 작품 140’,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가단조 작품 13’을 들려준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2-523-778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인간의 삶, 가족사 통해 들여다보기

영암 출신 임영희 시인 신작 시집 ‘엄마의 서재’ 펴내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낮익은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 시집은 몇 달이고 지란 나/ 자서전을 읽는 만큼의 열은 가지고 있을까. 그 마음으로 기웃거리다가 작은 공간 하나 지었다.”

영암 출신 임영희 시인이 신작 시집 ‘엄마의 서재 (문학의 전당)’를 펴냈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가족 서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둔 작품집에는 모두 50여편이 수록돼 있다. 근원적인 가족애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 그러하듯 임 시인의 시 또한 ‘모성애’와 ‘가족사’로 이루어져 있다. “모성적 생명의 물줄기”가 그녀가 추구하는 시의 흐름이라는 이종섭 시인의 표현처럼 시인의 시는 한 인간의 삶을 가족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햇볕을 피하고/ 바람과 비를 피하는 법을 기록한/ 간장 된장 항아리/ 농익은 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얀 무명 지우개로 묵은 때를 닦아내며/ 힘든 마음에 평온한 글자를 간직했던 엄마/ 그 서

재에서 간장 한 권/ / 된장 한 권을 읽고 지란 나/ 자서전을 읽는 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마음으로 기웃거리다가 작은 공간 하나 지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토속민요 감상회

5일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토속민요 감상회를 오는 5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토속민요는 대부분의 역사 기록에서 소외돼온 이 땅의 민중생활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민간 예술로,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옛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감상회에서는 토속민요의 의미와



표제시 ‘엄마의 서재’는 시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와 서정이 응축돼 있다. 따뜻하고 곡진한 시선을 통해 모성적 서정을 깊이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내고 있다.

이종섭 시인은 해설에서 “임영희는 모성으로 물려받은 가족사와 모성으로 일구는 가족사라는 두 축을 기둥으로 삼고, 가족과 서정이라는 화두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내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임 시인은 2011년 ‘한국문학’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장작21’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선별해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선곡과 해설은 MBC 문화방송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로 널리 알려진 최상일 PD가 맡는다.

이날 민요감상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사동 씨지킬의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독특한 서체와 화풍의 작가 이진경씨가 한지에 손글씨로 아름다운 토속민요의 노랫말을 써서 관객들에게 증정하며 ‘국악단 한얼음’의 공연이 열린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